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중국과 매우 멋진 무역합의 기대 호주와는 희토류 공급 협력 강화
 - EU, 러시아産 가스 수입 '27년 말까지 전면 중단. ECB 총재는 관세 부담 경고
 - 중국 3/4분기 경제 성장률, 1년 만에 최저.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 중국 4중전회 개막, 15차 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 제안을 논의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對中 무역협상 관련 트럼프의 긍정적 발언 등이 영향
 - 주가 상승[+1.1%], 달러화 강세[+0.2%], 금리 하락[-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美中 무역갈등 완화 가능성, Apple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방산 관련주 강세 등으로 1.0%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금주 내 섰다운 종료 기대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리안하 전망,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매수에 하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프랑스 재정 우려 등이 반영

※ 뉴욕 1M NDF 증가 1419.3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21.7원, 0.18% 상승). 한국 CDS 약보합

		10/20일	10/17일	전일대비			10/20일	10/1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735.1	6,664.0	+1.07%	국채 금리 10y	미국	3.98%	4.01%	-3bp
	유럽	572.10	566.24	+1.03%		독일	2.58%	2.58%	-0bp
	중국	3,863.9	3,839.8	+0.63%		영국	4.51%	4.53%	-3bp
	일본	49,186	47,582	+3.37%	CDS 5y	한국	24bp	24bp	-0bp
	한국	3,814.7	3,748.9	+1.76%		중국	45bp	45bp	-0bp
환율	달러지수	98.60	98.43	+0.17%	위험 지표	EMBI+	-	291	-
	유로화	1.1642	1.1655	-0.11%		VIX	18.23	20.78	-12.27%
	엔화	150.75	150.61	-0.09%		WTI유	57.52	57.54	-0.03%
	위안화	7.1215	7.1270	+0.08%	원자재	구리	503.6	497.0	+1.34%
	원화	1,419.2	1,421.2	+0.14%		금	4,356.3	4,251.8	+2.4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ì.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중국과 매우 멋진 무역합의 기대. 호주와는 희토류 공급 협력 강화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말에 중국과 ‘매우 멋진(fantastic)’ 무역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동시에 한국, EU, 일본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중국과도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 또한 양국은 매우 강력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며,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낙관
-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고도 제시. 중국은 미국을 존중하며, 이에 막대한 자금을 관세의 형태로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11/1일부터 관세가 잠재적으로 15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압박. 다만, 이는 중국과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며, 중국과 함께 번영하기를 원한다고 첨언
-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 앨버니지 총리와 만나 주요 광물 공급 협정을 체결. 구체적으로 미국과 호주의 합작사업, 호주 내 광물 가공에 대한 미국의 투자, 호주·일본·미국의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추정
- 한편, 백악관의 해시 국가경제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디커플링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믿지 않으며,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핵심은 ‘위험 축소(de-risking)’라고 언급했다고 지적
- 아울러 전날에는 연방정부의 섯다운이 이번 주 내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 만일 종료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피력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Morgan Stanley, 미국 주가 조정 가능성. 금 매입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Morgan Stanley의 마이클 윌슨 스트래티지스트는 단기적 측면에서 미국 주가의 조정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언급. 기업실적 전망 상향 둔화, 중국과의 무역마찰 재점화 등의 위험 요소가 있다고 지적
- 유명 채권 투자자 빌 그로스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금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 디지털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의 존 글로버 최고투자책임자는 비트코인 강세장이 끝났으며, 가격이 최대 7.5만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

■ EU, 러시아産 가스 수입 '27년 말까지 전면 중단. ECB 총재는 관세 부담 경고

- EU는 러시아産 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7년 말까지 수입을 완전히 종료하는 방안에 합의. 다만 찬성률이 55%에 그쳐 일부 회원국의 반대를 강제로 저지할 수는 없으며, 내륙국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는 예외 적용을 인정
- ECB의 라가르드 총재는 트럼프 관세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며, 수출입 업체들이 수익성 압박을 겪으면 결국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경고

■ 중국 3/4분기 경제 성장률, 1년 만에 최저.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 3/4분기 경제 성장률은 4.8%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동시에 당국의 목표치 5.0%를 하회. 미국과의 무역 갈등, 자국 내 부동산 침체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이에 당국의 경기부양책 강화 압박이 가중
- 한편, 9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했고, 소매판매 역시 3.0% 늘어 전월(3.4%) 수준을 하회. 다만 산업생산은 6.5% 증가하여 전월(5.2%) 및 예상치(5.0%) 상회.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문이 호조
- 인민은행은 1년 및 5년 대출우대금리(LPR)를 각각 3.0%, 3.5%로 유지. 1년 및 5년 LPR은 각각 일반 은행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작용

■ 중국 4중전회 개막, 15차 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 제안을 논의

- 공산당은 20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시진핑 당 총서기는 회의에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5차 5내년 계획에 관한 제안에 대해 논의.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내년 3월 전인대 이후 공개될 예정이며, 시장에서는 경제 문제가 주요 주제로 다뤄졌을 것으로 평가

■ 일본은행 다카다 위원, 물가 목표 대체로 달성. 금리인상 여건이 점차 조성

- 다카다 위원은 물가안정 목표가 이미 대략 달성했다고 평가. 이에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고 부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21일 현지시각 기준)

- 연준 월러 이사 및 ECB 라가르드 총재 발언. 캐나다 9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글로벌 경제, 미국 관세정책과 AI 버블 우려 등에도 낙관 전망 지속 - The Economist

(The world economy shrugs off both the trade war and AI fears)

-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제기. 그러나 글로벌 경제는 美中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낙관 의견이 제기. 실제로 OECD 중에서 핀란드 만이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코노미스트 대상 조사에서 금년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은 연초 수준으로 상향(2.2%→2.6%)
-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실효 관세가 실행 초기(최대 28%)보다 낮은 수준(약 10% 정도)에서 부과되기 때문. 이에 2/4분기 전 세계 기업이익은 전년비 7% 증가하며 역사적 평균 상회. 또한 AI 버블로 인한 투자 감소, 실업률 증가 가능성 등도 글로벌 경제의 우려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친 확대 해석일 소지

■ 미국 주가의 기록적 상승, 경기방어주 부각 등 감춰진 경고 신호도 내재 - WSJ

(The Warning Signs Lurking Below the Surface of a Record Market)

- 미국 주가는 연초 이후 기록적인 성과를 시현.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숨겨진 경고 신호들이 포착. 첫째, 유틸리티·헬스케어·필수소비재 등 경기방어주 섹터에 투자자 관심이 증가. 둘째, 경기침체에 민감한 지역은행·주택 건설업체·항공사 등의 주가는 지난 한 달간 큰 폭 하락.
- 셋째, 투자자의 국채 매수가 증가하면서 10년만기 국채금리는 1년 만에 처음으로 4% 하회. 특히 투기 등급 회사채 수익률도 6개월래 최고 수준. 넷째,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 다섯째, 노동시장 침체와 소비 지출 우려 증가

■ 중국의 다양한 무기화 수단 보유, 對美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여건 제공 - Financial Times

(China is well positioned for a trade showdown with Trump)

- 미국이 對中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판단은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생각에 기초. 하지만, 이는 대체 가능한 상품이 존재할 경우에만 해당. 중국은 희토류 등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필수 핵심 물질을 무기로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입지 구축
- 아울러, 중국은 항생제와 심장 질환·암·알레르기 치료제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약 700종의 의약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핵심 물질을 독점적으로 공급. 한편, 미국이 주력하는 반도체 및 AI 관련 제재는 화웨이의 부상과 딥시크의 등장 등으로 오히려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금과 주식의 동반 상승,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근본 원인 - Financial Times**

(Why gold and stocks are partying together)

- 금은 '79년, 주가는 '99년처럼 거대한 호황을 누리는 중. 증시 호황 속에서도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헷지 수요로 금값이 함께 오른다고 보는 시각도 많지만, 팬데믹 이후 여전히 남아 있는 막대한 유동성이 더 근본적인 원인일 가능성
-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급한 수조 달러의 유동성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시스템 안에 남아 자산가격 상승을 뒷받침.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함께 초금융화에 따른 거래 확산도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
- 역사적으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던 금과 주식, 그리고 여타 위험자산 가격의 동반 상승은 달러화 약세나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기존 해석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상황. 연준이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을 외면하다가 결국 강제 긴축에 나설 경우, 금과 AI 주식 모두 큰 조정을 겪을 소지

■ **글로벌 경제, 여러 부정적 요인에도 이례적으로 긍정적 시각 유지 가능 - 블룸버그**

(Glass Half-Full Economy Has Rarely Looked So Good)

■ **미국 신용 우려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K자형 경제 회복 등이 반영 - 블룸버그**

(From Cockroaches to Clouseau)

■ **미국 금융권, 부실 대출이 보다 심각한 사태의 예고 신호일 가능성 경계 - The Economist**

(Why Wall Street is fearful of more lending blow-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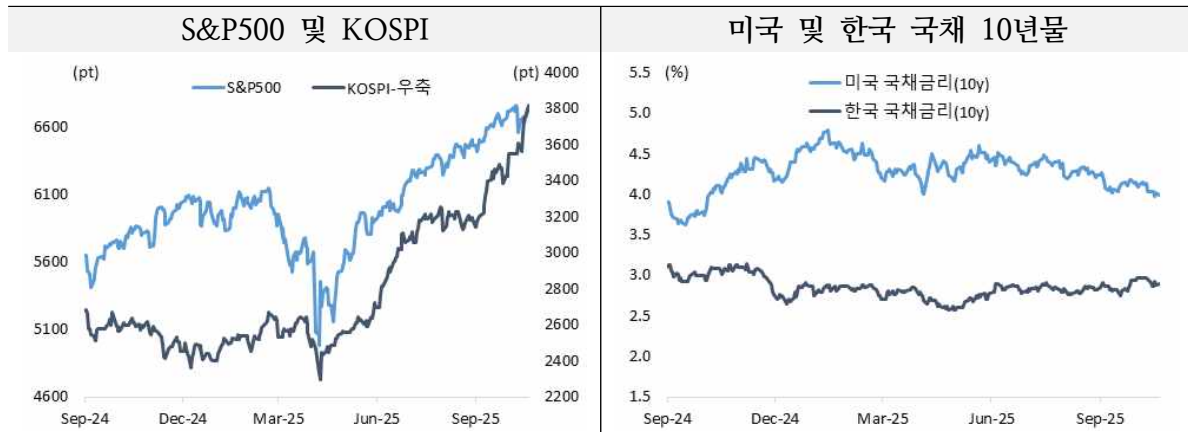
■ **미국 식품가격, 이민 단속에 따른 공급 부족 등으로 급상승 발생할 우려 - 블룸버그**

(Food Prices Could Go Even Higher After These ICE Rai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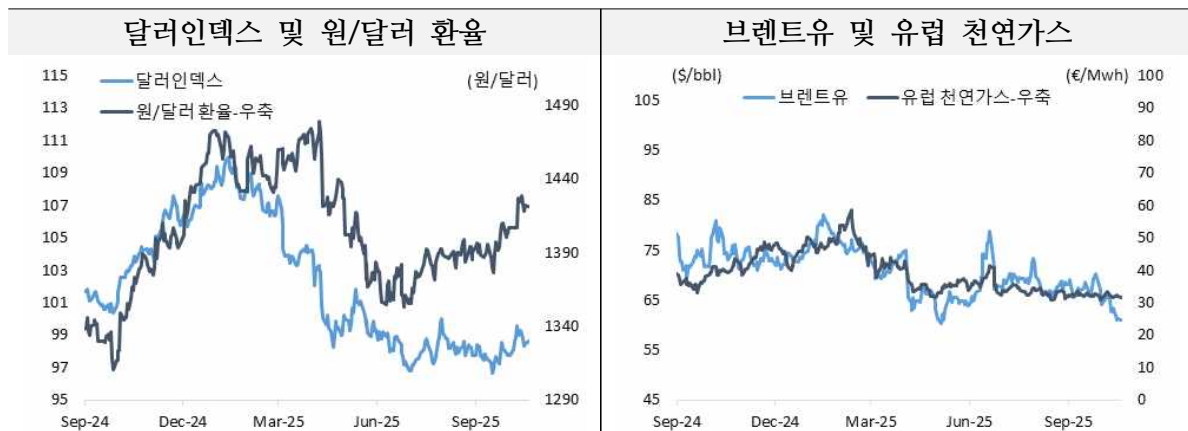
■ **중국의 무역전쟁 전술, 미국 의중 파악과 자국의 강점 확인에 집중 - 블룸버그**

(China Is Testing American Resolve in the Trade War)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